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5째주 (8월 29일)

정교회 주보

마태오 제 10주일

세례자 요한의 참수 기념일

제 1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주일 입당송 / 14, A 42

•세례자 요한 찬양송 / 160, B 152

•성당 찬양송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사도경 : 사도행전 13:25~32 / 봉독서 562

•복음경 : 마르코 6:14~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21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교회연도 시작 메시지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세계총대주교인 저 바르톨로메오스는 온 피조 세계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온 교회에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녀 여러분,

자연 환경을 위한 공식 기도를 드리는 교회연도 시작일(9월 1일)을 맞이하는 인류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악천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파괴적인 홍수 및 화재,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와 산업 생산에 부과된 제한 규제로 오염 물질과 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전 지구상의 존재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모든 차원의 생명들이 상호 의존해 있다는 또 다른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신학과 전례 전통의 확장을 포함하는 세계총대주교청의 생태적 계획이 과학적 발견과도 일치하고, 자연 환경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동원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권고와도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2 면 으로계속

따라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침해하는 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전 세계 정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 그들이 경제주의의 원칙, 즉 경제생활의 조직적 원칙, 생산과 소비의 원칙,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착취의 원칙, 전염병 이전에 만연했던 원칙으로 돌아가거나 이를 고수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이비 과학적 견해의 확산, 의료계 전문가들을 향한 비방,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가 중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기후 변화, 그 원인과 파괴적 영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과 협력, 공동 행동,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의 엄청난 도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 받는 우리 형제들과 "보기 좋은" 피조물의 파괴에 대한 무관심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존경심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느님께서 현존하십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공의회(크레테, 2016) 이후, 세계총대주교청은 그 정신과 결정에 따라, 신학자들로 구성된 공식 위원회를 임명하여 우리 신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또 사회적 사명과 현대 세계에서의 정교회 증언에 대해 관련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의회의 출판 승인을 받은 이 문서는 «세상의 삶을 위한 정교회의 사회 윤리»라고 제목 지어졌고, 그 본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과학의 발견들에, 심지어 종종 그들의 역사적 이해와 우주적 현실 구조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할지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과학적 지식에 대한 열정은 하느님의 신비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갈망과 같은 원천에서 흘러나옵니다." (§ 71)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는 자연 환경 보호와 이웃에 대한 박애주의적 보살핌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입장과 인간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은 모두 "예배 후의 예배 (liturgy after the Liturgy)"이며, 교회의 성찬 실현의 핵심적 차원입니다. 교회의 삶은 피조물에 대한 실천적 존중이며, 인간성과 연대의 문화를 경험하는 장소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은 교회의 필수적인 사목적 의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25:40)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인 윤리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에페소서5:2)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피조물의 '사제(priests)'로 여기며 피조물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또, 하느님 은총의 지극히 귀한 이 선물을 만물의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복되고 건강하며 결실을 맺는 새로운 교회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극히 복되신 테오토코스의 끊임없는 중보를 통해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간청합니다. 영광과 권세가 그분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2021년 9월 1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뜨거운 기원을 드리는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에비아의 야고보스 성인(1920-1991) 7

야고보스 성인은 이따금 말씀하셨습니다.

"비통함과 큰 슬픔은 일종의 중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몹시 슬프게 탄식하는 감정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항상 건강과 위로와 희망,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사람들에게 줄 때, 저는 교인들의 얼굴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들어 겁먹고 놀란듯한 표정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고 명랑한 얼굴도 보는데, 그런 사람은 성체성혈을 받고 나서 해처럼 빛을 발합니다."

"저는 고백성사를 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괴로워하며 웁니다. 저는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그(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해 이 땅 위를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의

사와 의학(의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의 건강에) 무관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토스산에 있지만 생각으로는 세상 속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아토스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세계총대주교의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역사적인 키예프 방문(2021년 8월 20~24일)은, 우크라이나의 구 소련연방에서의 독립선언 30주년을 맞이하여, 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에삐파니오스 전 우크라이나와 키예프의 대주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키예프에 머무는 동안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방문하여 키예프와 우크라이나의 에삐파니오스 대주교를 만났고, 8월 22일 주일에 키예프의 역사적인 성소피아 성당에서 함께 성찬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세계총대주교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성품은 수많은 회중들이 참여한 8월 22일 주일 성찬예배 중, 정교회의 다른 총대주교들과 대주교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스크바의 키릴 총대주교도 기억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독립교회인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대주교와 거룩한 공의회, 이 곳의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교회들, 경건한 성직자들과 축복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와 차별 없는 축복을 빕니다. 위대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애정과 큰 사랑을 전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모습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 **교회력 새해시작**

9월 1일은 우리 교회의 교회력으로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서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청에서도 특별한 성찬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교회연도의 축복된 시작을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교회연도를 맞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8월 30일(월)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9월 1일(수) 교회 연도 시작

오전 9시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